

유괴사건 절반 집 근처서 발생

유괴사건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범행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CJ엔터테인먼트가 고(故)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개봉을 계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인용해 배포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1989~1993년 발생해 검찰에서 처리된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유괴

낮 12시~오후 6시

여름철 가장 많아

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 근처'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 주변'(17.1%), '버스정류장'(6.8%), '놀이터'(6.0%), '거리'(5.1%), '공원·유원지'(1.7%) 등의 순이었다.

월별 범행시기는 여름철인 6월(13.7%), 7월(11.1%), 8월(11.1%)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3월(12.0%)과 12월(10.3%)에도 유괴사건이 반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시간대(낮 12시~오후 6시)가 53.8%로 가장 많았고 저녁(오후 6시 이후) 28.2%, 오전(9~12시) 10.3%, 아침(9시 이전) 4.3% 등이 뒤를 이었다.

유괴 목적은 '양육을 하려고'(15.2%),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15.2%), '몸값 요구'(13.9%), '뚜렷한 목적이 없이'(12.7%) 등으로 다양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도망치고 회유하고 통사정까지

■업주들 유형 각각각색

도주형 회사 문 닫고 사라져
회유형 “아는 사이...참아달라”
애걸형 “불경기 너무 어렵다”

다. 김씨는 평소 이들 근로자들에게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며 ‘친한 척’ 했다고 한다.

노동청은 김씨가 지난해 말 휴업을 한 것을 보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

◇애걸복결형=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정을 끝없이 늘어놓으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도 있다. 건설업체인 광주시 남구 월산동 H산업 실직 경영자 김모(46)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직원 이모(38)씨의 임금 468만원을 체불했다.

김씨는 이제가 임금을 달라하면 “불경기가 보니 정말 어렵다” “임금회사가 도급액을 지급하면 가장 먼저 주겠다”며 사정을 한다. 노동청이 조사에 나서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며 “제발 사법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신고 건수는 3천756건. 7천598명의 근로자가 209억5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청은 이중 880명에게 체당금 333억원을 지급하고, 863명에게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알선했다. 또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1천100여개 사업장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청 근로감독2과 김상훈 근로감독관은 “설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임금채권보장법=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제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고 1천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나원침 (7051) 김동두



광주시청 앞 FTA 반대 집회 주도

4명 전원 실형 선고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단체 대표와 기아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9일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위모(43) 사무처장과 기모(52)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차 노조대의원 김모(30)씨, 노조원 김모(38)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채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불법 폭력시위를 한 점과 시위 과정에서 전·의경과 공무원, 공무원(시청 청사) 등에 적잖은 인적·물적피해를 끼친 점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재판은 한미 FTA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의 정도와 절차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FTA협상 반대 시·도민 1차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오전 11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점거, 교통방해를 초래한 데 이어 시청사 일부를 파손하고, 전·의경과 공무원 등 3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서 최고 3년이 구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중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30 피대단지!
당첨면적 4.4평면 166평 166평
수원신도시 피오리
문의전화 062-367-9000

13~14일 교수들 투표 고려대 총장 거취 결정

고려대는 논문표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필상 총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9시30분부터 교내 인천기독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 투표를 통해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과반수의 신임 득표를 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이 총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파트 임대사업자 보증금 챙겨 달아나

강진의 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챙긴 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진경찰청은 9일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김모(48)씨가 지난해 9월 세입자들로부터 6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뒤 강진읍 서성리 C아파트 28평형 16가구를 분양받은 뒤 모두 6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15가구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 중 4억4천만원은 아파트 건설사에 분양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을 챙겨 6개월째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밀린 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난동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소동을 벌였던 30대가 또 타워크레인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B 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모(30)씨가 약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2시간 가량 경찰 및 소방대원과 대치했다가 실적을 받고 내려왔다. ○추씨는 지난 7일에도 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지난해 11월 8일부터 B건설 하청업체에서 근무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퇴직공무원 수당 요구 소송 첫 패소

지난해 말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퇴직수당을 더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에서 퇴직공무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9일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미지급된 퇴직수당 3천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부족지급퇴직수당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제2항이 퇴직수당의 지급

제한 비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퇴직수당의 산정근거를 규정해 포괄위임금지원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제2항은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에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선택과목 확대안 철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교육부는 9일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운영위원들은 공적외안이 학습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1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한다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연합뉴스

“盧캠프 인사 제이유서 2억 수수”

검찰 혐의 포착 수사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민주당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윤모씨가 제이유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2005년 제이유 측에서 “집행유예중인 주수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 쪽에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이유그룹에 대한 계좌 추적과 윤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윤씨가 2억여원을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정은 남아 있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윤씨는 2002년 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캠프서 3개월간 일했으며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거짓 진술 강요’ 파문 검사 곧 소환조사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를 규명간 소환해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반 관계자는 9일 “어제 백 검사의 신문 내용을 녹취했던 전 제이유 이사 김모씨와 전 제이유 납품업체 추가 감모씨를 조사했다. 오늘 김씨를 추가 조사하고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백 검사를 규명간 소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감찰반은 제이유 수사 과정에서 감모씨가 지휘를 소홀히 한 상황이 드러날 경우 선우영 서울 동부지검장과 이춘성 차장검사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선우영 지검장은 정성명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감모씨를 조사했다. 오늘 김씨를 추가 조사하고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백 검사를 규명간 소환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구름낀 날이 길 2월 10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음. (음 12월 23일) 전국날씨

서울	구름 많음	1~8℃
부산	구름 많음	2~7℃
대구	구름 많음	4~8℃
대전	구름 많음	2~9℃
광주	구름 많음	-1~9℃
전주	구름 많음	0~9℃
충주	구름 많음	0~9℃
춘천	구름 많음	1~8℃
강릉	구름 많음	-1~9℃
영월	구름 많음	1~8℃
홍천	구름 많음	1~8℃
인천	구름 많음	1~7℃
평안	구름 많음	-2~7℃
함평	구름 많음	1~7℃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7:10 썰물 < 11:13
여수 밀물 < 01:21 썰물 < 07:16

▲달출 00:47 ▲달집 11: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최저/최고	-3/5	-1/10	2/9	1/4	-3/5	-2~6